



창원 의회 소식

제 9 호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창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



CONTENTS



04 개 회 사

06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30회 임시회 (2013. 7. 29. ~ 7. 31.)
- 제31회 임시회 (2013. 9. 4. ~ 9. 11.)

14 예산심의 활동

16 시정에 대한 질문

18 5분 자유발언

- 제30회 임시회 (손태화 의원 등 10명)
- 제31회 임시회 (김현일 의원 등 12명)

22 건의안

-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 대정부 건의안

24 위원회 활동

2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1 언론 보도자료



개 회 사



창원시의회 의장 배 종 천

존경하는 110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기상이변 속에, 올여름 계속된 폭염으로 농작물과 적조피해 등으로 시민들의 삶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만, 단비가 내려 만물이 생동감에 넘치고, 시민들도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을을 알리는 처서를 지나 백로를 앞두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제3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참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조갑련 의원님은 정치학 박사학위를, 김윤희 의원님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취득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한, 박완수 시장님께서 지난 14일 한국기자협회 제4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2012 재외동포기자대회 및 2013 세계기자대회”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데 대해 축하를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의 최대 화두이며 박근혜 정부의 역점시책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시 역시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

로 일자리창출본부를 발족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생 잡(JOB) 토크콘서트, 일자리만들기 민관산학 협약 추진,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영향평가제 실시, 채용박람회 상설화 등의 시책을 통해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는 만큼 우리의 역량을 다함께 모아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이번 임시회에서는 147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께서 지역에 머무는 동안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고향의 따뜻한 정도 듬뿍 담고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 9. 4.

창원시의회 의장 배 종 천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3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7. 29. ~ 7. 31.)
~ 3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발 의 자 : 노창섭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

■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 대정부 건의안

- 발 의 자 : 장병운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가. 진해항은 1976년 제1종 지정항만으로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1991년에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10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개발·관리권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함으로써 지방관리항으로 지정됨

나. 그러나 항만개발·관리권의 권한위임은 권한이양을 위한 전 단계 조치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개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 긍정적 측면과 항만 경쟁력 약화, 항만정책의 효율성 저하 등의 부정적 측면이 혼재함
다. 항만의 특성 및 개발과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항만개발·관리권 위임 타당성이 높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협력과 재정 지원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임

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요의 다양성과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를 고려하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31 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9. 4. ~ 9. 11.)

~ 8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노창섭 · 이옥선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함.

■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가.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3,400여개 읍·면·동 중 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사업에 의창구 용지동이 선정됨에 따라 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시범실시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부지조성사업 준공으로 조성된 지구 등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구(舊)법정동 명칭과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편의 도모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31 회 창원시의회 임시 (2013. 9. 4. ~ 9. 11.) ~ 8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도서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에 도서 대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이동도서관은 지금은 마을도서관이 보편화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 하는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 체계강화 방안에 따라 안전조직 체계를 개편하여 시민의 행복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 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소방서 안전조직 강화를 위해 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하는 등 소방인력을 조정·보강하고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 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및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권한 이양된 위임사무를 신설·장비하고, 사무명·근거법령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 받고자 함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박삼동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상이군경과 그 유족이 모여 사는 자활용사촌인 광명촌 거주 보훈세대의 주택이 38년전 건립되어 지반 침하 및 주택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거주하는 보훈가족 대부분 노령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복지 향상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함

■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과 그 자금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례로서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목적사업으로써 사실상 종료되었고, 잔고 외 추가수입 및 자체 재산이 없으므로 특별회계의 존치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3. 3월부터 만0세~만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복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단일화하고자 출산양육수당을 폐지하고, 현행 운영처리 기준 및 절차를 현실적·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 (2013. 9. 4. ~ 9. 11.) ~ 8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통합 이전의 창원지역에만 적용되는 유보조례로서 새마을사업의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용자 조건이 현재의 금융제도와 불일치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금이 조성 및 운용되고 있음

■ 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한국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징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인구 대비 문화상 수상자 수가 적고, 문화상 분야의 명확성 결여로 시상부문을 세분화·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인의 사기 진작 및 문화 융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창원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규정된 지방체육진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원 및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어린이전문도서관의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경쟁을 제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가 있어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도서관의 소재지를 명시하려는 것임

■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송순호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가. 지자체가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보도(歩道)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됨은 물론 신속한 보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 미확보 등으로 시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매년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보도정비·보수 시에 발생하는 보도용자재의 효과적 관리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 절감 도모와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함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31 회 창원시의회 임시 (2013. 9. 4. ~ 9. 11.) ~ 8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진북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질환경 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종전의 마산지역에만 한정하여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보조례로서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자산지구, 봉덕지구, 회성지구, 초계·교방지구)이 청산 완료되었으므로 독립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가.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통합전 창원 지역에만 한정하여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보조례로서,
나. 舊)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이주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의 목적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고
다. 국가산업단지 용지 매수에 따른 미보상 물건이 있으나 보상 금액의 과소, 물건소유자 사망 및 행불 등으로 보상금 청구가 거의 없고, 이에 따른 집행실적이 2002년 이후 전혀 없어 특별회

계의 존치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현수막 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현수막 게시대의 관리운영체계가 구청별 상이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협약 만료된 의창·성산구에 소재한『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대상시설물의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예산심의 활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 일 시 : 2013. 9. 4.(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위원수 : 11명
- 안 건 명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정쌍학	심경희	차형보, 강영희, 김헌일, 방종근, 문순규, 이형조 송순호, 박해영, 김석규

위원회 활동 내역

- 제1차 회의(2013. 9. 4)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제2차 회의(2013. 9. 10)
 - 안건 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심의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502,384,950	100%	2,354,912,196	100%	147,472,754	6.26%
지방세수입	622,380,000	24.87%	593,724,000	25.21%	28,656,000	4.83%
세외수입	729,200,162	29.14%	674,222,585	28.63%	54,977,577	8.15%
경상적세외수입	378,263,002	15.12%	420,785,513	17.87%	△ 42,522,511	△ 10.11%
임시적세외수입	350,937,160	14.02%	253,437,072	10.76%	97,500,088	38.47%
지방교부세	287,972,154	11.51%	281,300,000	11.95%	6,672,154	2.37%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	193,341,000	7.73%	193,341,000	8.21%	0	0.00%
금	609,491,634	24.36%	552,324,611	23.45%	57,167,023	10.35%
보조금	462,526,925	18.48%	420,214,921	17.84%	42,312,004	10.07%
국고보조금등	60,000,000	2.40%	60,000,000	2.55%	0	0.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60,000,000	2.40%	60,000,000	2.55%	0	0.00%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502,384,950	100%	2,354,912,196	100%	147,472,754	6.26%
일반공공행정	131,563,768	5.26%	126,913,661	5.39%	4,650,107	3.66%
공공질서및안전	21,503,479	0.86%	22,281,757	0.95%	△ 778,278	△ 3.49%
교육	39,878,070	1.59%	39,677,199	1.68%	200,871	0.51%
문화및관광	260,297,751	10.40%	241,034,996	10.24%	19,262,755	7.99%
환경보호	305,684,794	12.22%	277,531,088	11.79%	28,153,706	10.14%
사회복지	592,706,317	23.69%	546,535,002	23.21%	46,171,315	8.45%
보건	28,723,189	1.15%	28,684,384	1.22%	38,805	0.14%
농림해양수산	112,074,627	4.48%	95,570,083	4.06%	16,504,544	17.27%
산업·중소기업	81,970,965	3.28%	73,291,400	3.11%	8,679,565	11.84%
수송및교통	270,259,411	10.80%	240,507,523	10.21%	29,751,888	12.37%
국토및지역개발	287,408,710	11.49%	285,014,132	12.10%	2,394,578	0.84%
예비비	9,929,991	0.40%	20,310,658	0.86%	△ 10,380,667	△ 51.11%
기타	360,383,878	14.40%	357,560,313	15.18%	2,823,565	0.79%

시정에 대한 질문 & 답변

[재3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7. 31(수) 10:00~)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
(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 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웅동 복합레저단지 해충피해 및 진해국가산업단지 수치 · 죽곡마을 이주대책 관련

질문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 레저단지의 사업규모와 사업내용, 시행방법 등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시와 경상남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동 매입한 2250천㎡ 부지에 2009년 사업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주)진해오션에서 총사업비 3,400억원 투입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경상청으로부터 지난 7월 12일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음. 주요 시설로 36홀의 퍼플릭 골프장, 숙박시설, 외국인 학교, 병원, 스포츠파크, 해양관광시설 등 복합관광 레저단지로 시행방법은 2009년부터 2039년까지 30년간 임대료를 납부하고 시설은 30년 후 기부채납하는 BOT방식임

질문 실시계획 인가받는 기간이 길게 걸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니까?

답변 당초 해양수산부로부터 동 부지를 받는 조건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건을 받았고 이 부지에 소멸어업인을 위한 생계대책 부지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행 법령이나 문제에 대하여 당시 지정부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 왔고 그 협의에 따라서 방법과 면적, 위치가 결정된 것이 작년 2012년 2월에 결정되었고 그 이후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개발계획의 변경, 실시계획 승인 준비 등이 있었고 올 4월에 변경계획이 승인되었고 7월 12일자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음

질문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제·방역방법과 1일 기준 어느 정도 방역을 하고 있는지, 약제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지습지를 없애는 복토와 유충구제, 발생한 해충에 대한 구제 이렇게 세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복토 작업은 올 3월부터 500천㎡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유충구제는 올 4월부터 6차례 스타리사이드를 살포했고 무인헬기로 4회 방제했음. 이미 모기나 갈따구로 전환한 성충에 대해서는 발생빈도에 따라 매일 또는 주 2~3회 정도 방역을 하고 있음. 방제 약제는 유충구제는 스타리사이드, 성충 살충제는 사이클론 외 2종을 사용하고 있음

질문 향후 방제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최종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답변 근본적인 방제 대책은 발생지를 없애는 복토작업이며 내년 상반기에 다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며 웅동지구는 방제의 우려는 없고 서천 및 남천 조성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처인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건설 사무소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겠음

질문 수치, 죽곡마을은 공해지역으로 소문나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고 생계가 막막한 실정인데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장기적으로 이주를 해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STX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모델이라든지 헛집을 임대하도록 종용하겠음



박 철 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인사 방식과 제도 관련 및 구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질문 창원시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음

답변 균형인사만 가지고는 공무원들 통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공무원들의 실적 그리고 능력, 그에 맞추어서 또 나름대로 연수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함

질문 구청에서 6급 이상의 승진자가 없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음

답변 통합된 이후에 구청에서 5급 승진자가 2명이 나왔고 물론 소수직렬(사무직, 보건직)임. 앞으로 인사 관행을 조금씩 바꾸면서 정말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도 바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음

질문 구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답변 예산 편성 권한이 구청에 없다 보니 민원 해결이 늦어져 이번 추경 할 때에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 일부 주었고 계속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속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구청에 있는 제반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음





5분 자유발언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
(5분 자유발언)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손태화 의원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를 촉구하며
(2013. 7. 29.)

창원시의 주요관문인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이 노후되어 이용자 불편은 물론 차량 진출입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만큼 터미널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함.



이상인 의원

사이버 테러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하며
(2013. 7. 29.)

날로 증가하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운영을 전담할 기청 '정보보호담당' 신설과 예산 편성을



노창섭 의원

창원시는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공급하는 로컬푸드 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라 (2013. 7. 29.)

일본의 경우 농산물 직매장이 전국적으로 1만 2816개소가 운영되어 1년에 8,700억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므로 창원시는 인근 400만 부산광역시와 110만 도시 소비자가 있는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하반기 농업기술센터내에 전담 행정기구 설립과 지역의 농민, 시민단체, 교육청, 소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창원시 로컬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공창섭 의원

용추교 하부 주차장내 화장실
건립과 퇴촌2호교 부근 데크로드
설치 (2013. 7. 29.)

ktx창원중앙역과 국도 25호선 개통 이후 접근성이 용이해 외지에서 창원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으나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쾌적한 화장실 건립과 창원대에서 사격장 삼거리 퇴촌2호교에서 사림민원센터 하천변 테크로드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촉구함



이성섭 의원

진해국가산업단지 인허가권자는 수치·죽곡마을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2013. 7. 29.)

최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 인가신청을 실효 처분한 것은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갈망해 온 수치·죽곡마을 주민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고통을 준 것임. 주민들은 조선소의 특성상 야드에서 발생하는 대기질오염과 조선소로부터 들려오는 소음 등으로 이미 공해지역으로 소문이나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생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최미니 의원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13. 7. 31.)

지역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 일대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청년밴드 등 20여개 팀은 성산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민자율 프린지공연'에 공모하여 청년들 스스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지역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가 하나의 문화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려면 창원

5분 자유발언



방종근 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이행에 대하여
(2013. 7. 3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는 '통합 이후 4년 동안 통합 전 지역별 세출 비율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방세와 토지 매각 대금은 지금까지 옛 창원시가 60%이상 비중을 차지하나 사업비는 40.7%밖에 투자되지 않아 세입과 세출 예산을 비교해 볼 때 특별법 제29조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특별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함.



정영주 의원

보건소 내 장애인 치과 개설
을
촉구하며 (2013. 7. 31.)

치아 질환이 있는 중증 장애인이 일반 치과 병원을 이용하려면 환자로부터 진료 협조가 어렵고 진료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이 걸려 환자 및 보호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자원봉사 치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보건소 안에 장애인 치과 개설을 촉구함



강기일 의원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2013. 7. 31.)

창원시민 의사도 묻지 않고 경상남도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창원시민의 행복과 생활 안정을 무시하고 지역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처사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임. 공공기관 이전을 강행한다면 110만 창원시민의 지탄과 심판을 각오



조갑련 의원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
하는 인사행정(2013. 7. 31.)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와 각 구청 5개과 등 8개 과 중에서 단 2개 과만이 사회복지직 과장이고 39개 6급 담당중에 13개 담당만이 사회복지직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260여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조직의 전달체계를 위해서는 5개 구청과 본청 사회복지과는 복지직 사무관을 배치하여 복지행정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5분 자유발언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김현일 의원

경화역 주변개발과 안민고개 시내버스 운행중지 건의
(2013. 9. 4.)

여작천과 함께 진해 군항제의 대표적인 명소인 경화역 주변 정비를 통하여 경화역이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체육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심 속의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안민고개길에 35인승 내지 45인승 대형버스운



노창섭 의원

창원시는 가로수 공원 등 공공 부문의 폐목 및 조경 부산물을 퇴비화하여 관리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 (2013. 9. 4.)

조경정책으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녹지에 대한 관리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경 부산물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조직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로수, 공원 등 공공부문에 발생하는 폐목 및 조경 부산물을 퇴비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자원 재활용 방안을 촉구하고자 함



이옥선 의원

도시재생에 대하여
(2013. 9. 4.)

마산지역 전체의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차형보 의원

창원시 태마공원(파크) 유치 필요성과 최적지 동창원(동읍)

남해고속국도, 중부내륙 고속국도, KTX 창원·중앙역, 일반국도14·25·30·60(예정)호선, 김해국제공항 등과 인접해 있으며 환경수도 창원의 배후지이자, 동양최대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가 절대보존을 위해 개발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창원(동읍,대산·북면)지역에 테마파크(공원)을



손태화 의원

음식물쓰레기 용기 침출수 오염과 관련하여(2013. 9. 4.)

2013년 6월부터 옛 마산과 진해에도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전면 사용되면서 용기 내 잔여 침출수가 마산 앞바다 오염원이 되고 있으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침출수와 용기 세척용 폐수의 우수관 유입에 따른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것을



김석규 의원

창원시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개선에 대하여
(2013. 9. 4.)

전문가 영입 및 전담기구 설치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조속히 무기계약근로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5분 자유발언



강기일 의원

「안심귀가 및 동시통역 서비스」 운영 시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어린이·여성·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안심 귀가 서비스를 도입할 것과 외국인이 택시 이용시 무료전화로 통역사를 호출하여 목적지·요금 등 택시 이용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에서 도입할 것을 당부 드림



방종근 의원

창원시 가로수인 메타세쿼이아를 지켜라 (2013. 9. 11.)

창원시는 한전과 협의하여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작업을 추진해 메타세쿼이아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다시는 전선으로 말미암아 정상 부위가 잘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길 당부함



문순규 의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2013. 9. 11.)

창원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9월 5일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하여 창원시는 향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간곡히 요청함



이해련 의원

도심속 오아시스 여좌천 생태하천 복원 촉구 (2013. 9. 11.)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 매년 4월에는 여좌천을 중심으로 문화행사와 경연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어 반드시 생태하천으로 복원돼야 함.
여좌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20.3% 많은 51.2%로 나타났으므로 창원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이김없는 협조를 당부함



박철하 의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에 대하여 (2013. 9. 11.)

보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복지정책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복지정책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2014년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된다는 경상남도과 도교육청의 발표로 올해보다 100억이 늘어난 237억원을 지원해야 함.
분담비율 조정과 일회성 사업 등을 줄여 곧 다가올지도 모르는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임



전수명 의원

KBO는 더 이상 진해야구장 발목을 잡지마라 (2013. 9. 11.)

시민 혈세로 건립하려는 신규야구장 위치를 두고 KBO가 월권행위를 하려는 것은 부당하며 창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만나 창원시의 현실을 잘 설명한 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KBO 총재와도 진해야구장 건립에 담판을 지어야 할 것임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 대정부 건의안

통합 창원시는 110만 시민, 지역 내 총생산 약 30조원에 이르는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태평양·유럽·동남아 등 세계 주요 항로가 만나는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써의 지정학적 이점과 사람, 자본, 비즈니스가 모여드는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뒷받침해줄 국가의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진해항은 1976년 제1종 지정항만으로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1991년에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10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개발·관리권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방관리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항만개발·관리권의 권한위임은 권한이양을 위한 전 단계 조치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개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 긍정적 측면과 항만 경쟁력 약화, 항만정책의 효율성 저하 등의 부정적 측면이 혼재하고 있어 심도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요의 다양성과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가 낮아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항만의 개발과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에도 항만개발·관리권 위임의 타당성이 높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협력과 재정지원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현실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진해항이 반드시 지방관리항에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환원되어야 함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110만 시민 모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진해항은 입지적 여건과 장래의 항만 물동량을 고려하여 부산항 신항의 피더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진해항을 국가관리항으로 환원하여 부산항 신항의 피더항 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장래의 물동량과 항만개발 수요를 반영한 부두 및 배후부지를 확장하여야 될 것입니다.

둘째, 경상남도의 재정력으로는 항만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비로 인해 항만시설의 기본시



설과 기능시설은 물론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의 개발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방관리항으로 지정된 진해항은 경남항만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동부경남 산업·레저 핵심항만”이라는 목표로 정박지 규모 조정, 항만시설 예정지구 배후부지 활용, 항만이전 및 재개발 등 7개 사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복지, 지역개발, 시설투자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상존할 뿐 아니라 대규모 시설투자 재정력이 낮아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 항만의 개발 및 운영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낮은 하역료 부과로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시설투자에 대한 지역의 요구는 계속되어 결국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위임받은 항만의 시설 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을 경쟁적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행 사무위임 상태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정부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데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의 개발 타당성을 심사하면서 지방관리항에 대한 개발예산 배분이 소홀해 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다양성, 일정 시기별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담당직원의 항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의회는 정부가 튼튼한 국가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110만 창원시민 모두는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끝으로 창원시의회의회는 110만 창원시민과 함께 진해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환원되는 그날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진해항이 부산항 신항의 피더항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전인차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3. 7. 29.

의/회/운/영/위/원/회



-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우서)는 지난 7월23일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를 7월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다.
- ◎ 8월 27일 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를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개최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동화)는 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 9월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하고 ▷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균/형/발/전/위/원/회



-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장병운)는 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균형발전국, 소방본부, 상수도사업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칠서정수장, 대산정수장, 석동정수장 현장을 방문하였다
-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해양신도시 건설현장과 마산해양레포츠 스킨을 방문하였다
- 9월 30일 ~ 10월 2일 3일간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삼척시의 선진 관광인프라 구축 우수사례 수집과 관광시설 규모, 운영실태 등 각종 현황 비교를 위한 견학을 실시하였다.



경/제/복/지/위/원/회



-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영주)는 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인 7월 30일 한국전기연구원(창원본원)을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전기산업계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해 달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제31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고,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전기연구원“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부지



환경/문/화/위/원/회



-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조준택)는 지난 7월 30일 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중장기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용역결과와 덕동하수처리장 악취발생 개선방안에 대해 환경문화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9월 5일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제1차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다.
- 9월 6일 3.15아트센터를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창원시립합창단의 연습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 지난 8월 14일, 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도시철도사업 타당성평가 용역결과와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 지적과 민원해소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황일두)는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으며,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황일두)는 위원장 등 7명의 위원이 지난 9.26~27일 이틀간 신도시 조성구도심 재개발사업 등 우리시와



통합3주년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3회 이달의 모범조례 선정증서 수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로부터 제3회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되어 7월 22일 증서를 수여 받았다.

창원시 상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7월 4일 창원시 상인연합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항산 초등학교 창원시의회 방문



7월 5일 진해구 제항산 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창원시의회를 견학·방문하였다.

창원시 자치분권 모델 개발 포럼



7월 3일 통합 창원시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모델 개발 포럼에 참석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일본 후쿠야마시 미노미 공민관 방문



7월 8일 일본 후쿠야마시 미노미 공민관 일행이 창원시의회를 방문하였다.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7월 26일 제166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제30회 임시회 개최



제30회 임시회가 7월 29일부터 7월 31일 3일간 개최되었다.

칠서정수장 및 본포 취수장 부근 낙동강 수질 확인



낙동강 경북권역에 녹조발생으로 수돗물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30일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장병운)에서 칠서·대산·석동 정수장 3곳을 방문하여 수질상태를 확인

직원 자녀 창원시의회 방문



2013. 내고장 사랑 돌보기 탐방관련 직원자녀들이 창원시의회를 방문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제11기 청소년 직원 체험단 창원시의회 방문



8월 9일 제11기 청소년 직업 체험단이 창원시의 회를 견학·방문하였다.

여성의원 워크숍 참석



8월 22일 ~ 8월 23일 양일간 여성의원이 전국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관하는 2013년 하계정기 워크숍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일본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단 방문



8월 26일 일본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단이 창원시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단을 접견하였다.

제31회 임시회 개최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제3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9월 4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 정 활동

좋은조례연구회 간담회 개최



좋은 조례 연구회는 9월 11일 왕성한 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방문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단장 치광철주임) 일행이 9월 12일 청원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기관의 우호협력을

2013년 을지연습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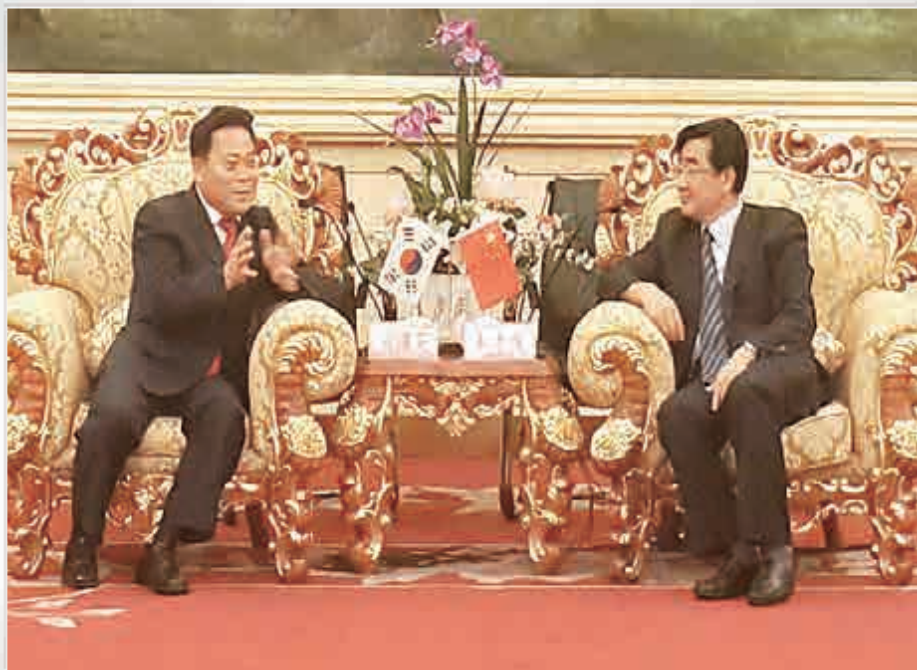


청원시의회(의장 배종천) 의장단은 9월 20일 을지연습장을 방문하여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추석맞이 군부대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청원시의회 의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군부대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문 위문 및 격려하였다.



창원시의회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우호 방문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를 지난 9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우호 방문했다.

배종천 의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우호교류단은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이하 '연변주'라 한다) 인대상무위원회(주임 차광철)를 공식방문하고, 양 기관의 우호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연변주 인대상무위원회와 우호 협약을 맺은 이후 상호 활발한 교류를 위한 초청방문이다.

방문단은 10일 연변주 인대상무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경제, 문화, 관광 등 상호 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 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연변주 소재 기업체 방문과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화룡시를 공식 방문하였다.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

창원시의회 박해영 의원(팔용·명곡동)이 발의하여 제정된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so로부터 제3회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되어 22일 증서를 수여받았다.

박해영 의원은 “창원시 도계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부의 날(5월 21일)’의 발원지로 그 정신을 계승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시민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에는 창원시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so는 “전문이 5개에 불과한 간단한 조례이나 건강한 가정형성과 사회전설을 지향하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이번 ‘이달의 모범조례’에는 부부의 날 조례와 함께 전국적으로 7건이 선정되었으며, 모범조례 발의 및 제출자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본부가 실시하는 독일 지방자치단체 현장교육 참여후보자로 추천되고 연구so 특별회원 자격을 받게 된다.

한편 ‘이달의 모범조례’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so와 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한국사무so가 공동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외부의 신청이나 추천 없이 직접 조사·발굴하여 선정하고 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시의 등축제를 중단하라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종천 창원시의회의회장)는 지난 7월 26일 시·군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령군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6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안건『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진주시의회 유계현 의장 제안으로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례회를 마친 후 『진주남강 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시의 등축제 중단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가 『2010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일시 개최기로 한 '서울등축제'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자부심과 독창성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성 전투 때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수단에서 유래하여 오랜 역사성을 바탕으로 우리 경남도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까지 키워왔으며,

그동안 2005년 대한민국 우수축제를 계기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우수 축제, 그리고 2011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여 2011년 세계축제협회로부터 금상과 동상을 수상하였고,

캐나다, 미국 등에 축제를 수출하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가 그대로 모방하여 해마다 개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면서

"서울특별시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를 중단하고, 지방축제의 독창성을 빼앗아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중앙정부에는 지방축제의 독창성을 침해하는 모방축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원



균형발전위원회 칠서정수장 및 본포취수장 부근 낙동강 수질상태 확인

창원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장병운)는 최근 낙동강 경북 권역에 녹조 발생으로 수돗물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오후 칠서·대산·석동정수장 3곳을 방문하여 수질상태를 확인했다.

장병운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무더위 속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에게 수박을 전달·격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의회 의장단

창원시 『2013 을지연습장』 방문 격려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 의장단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 동안 실시하는 '2013 을지연습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군인,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등의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일 을지연습장을 방문했다.

배종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을지연습은 비상사태의 대비 절차와 방법을 숙달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연습인 만큼 각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을지연습에서는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비상사태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훈련한다. 보통 관계자들이 메시지와 문서로 조치를 취하는 훈련, 중요사안을 토의하고 해결하는 회의형 훈련, 사람, 물자 등이 참여하고 동원되어 실시하는 실제훈련으로 진행된다.



창원시의회 여성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주관 워크숍 참석

창원시의회 정우서 의원을 비롯해 정영주·심경희·박순애·홍성실 의원 등 5명의 여성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2013 하계 정기워크숍 및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2013 하계 정기워크숍'은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지역 우수정책 견학 및 전국 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주제로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창원시의회에서 '2012 하계 정기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2014 달라진 선거법' 세미나, '찾아가는 도민안방, 36524센터' 지역정책 강의, '생태·교통마을 및 화성 행궁' 현장방문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성평등하고 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을 개발·정책화하고,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 여성의원 연대단체다.



환경문화위원회 3.15 아트센터 현장 방문

창원시의회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조준택) 소속의원 11명은 9. 6 일 3.15아트센터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였다

참석한 의원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경남에서 최고의 공연시설을 갖춘 3.15아트센터가 다양하고 품격있는 공연으로 지역의 문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시설관계자로부터 주차공간 부족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

내년 의정비 동결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10일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연이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기침체 속에 지역주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시의회는 2013년도 수준인 42760천원(의정 활동비 29,560천원, 월정수당 13,200천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의정비 인상 때 발생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여론조사, 조례 개정 등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종천 의장은 "내년 의정비 동결은 통합 창원시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내고,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의회가 솔선수



추석맞이 군부대 및 시설 방문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은 9일 부의장, 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격려했다.

이날 창원육군중합정비창과 진해해군기지사령부를 찾아 가족과 떨어져 국토방위에 고생하는 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격려했고 또한 마산성로원을 찾아 굴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로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배종천 의장은 "명절이 소외된 이웃에게는 오히려 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훈훈한 추석명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있다.



이 형 조 의원

최근 우리사회에 힐링(Healing)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문자 그대로 '치유한다'는 의미이다. 왜 사람들에게 힐링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상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혹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모두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과거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상처투성이였다.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처가 많았다.

우리의 근대사 백년은 크고 작은 생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나라는 한일강제 합병, 광복, 6·25한국전쟁, 3·15부정선거, 5·16군사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항쟁, 10·26사태 등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격변의 세월을 보내왔던 것이다. 그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몸에 심각한 상처가 생기면 외과적 수술과 전문치료를 통해서 치유되기도 하지만 가벼운 상처는 스스로 치유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다. 아픔이 있으면 일정부분 아파해야지 무조건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은 좋은 치유방법이 아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놀다가 절대로 상처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과잉보호를 할 때가 있다.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 한 번도 상처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세상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알게 모르게 여러 상처를 받게 되지만 그다음의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대나무는 마디가 튼튼하고 굵을수록 큰 대나무로 커 나갈 수 있다.

요즘 창원시에 통합이후 많은 상처들이 생겨났다. 많은 시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지방의원으로서 치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송구할 따름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아파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처를 싸매고 잘 아물도록 치료해야 한다. 이 상처는 소모적인 상처가 아니라 생산적인 상처가 될 것이며, 분열의 상처가 아니고 화합의 상처가 될 것이라 믿고 싶다.

어느 기독교인의 말씀처럼 구약성서 전도서에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싸울 때가 있으며 화해할 때가 있다고 했다.

지금은 서로가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 때이다. 그리고 이 힐링을 위해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위정자들은 서로를 깎아 내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통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110만 시민들을 위해 무엇이 균형발전이고, 무엇이 상생을 위한 길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길 간곡히 호소한다. (창원시보 제73호 게재)



심 경 희 의원

나는 항상 어릴 때 도덕 시간에 배웠던 '난사람, 돈사람, 된사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과연 나는 어느 종류의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야할 우리 시민들이 나보다는 남을,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된사람'이 많을 때 우리 통합창원시가 더욱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지 않을까?

'된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가정교육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아이의 미래와 가정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본다.

조부모와 온 가족들이 함께 공동체생활을 하던 대가족의 경우에는 경로효친이나 예의범절과 육아가 가정 내에서 보고 배우며 교육되어졌으나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 사회에서는 이기주의와 무관심, 대인기피증 등으로 자신만의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러기에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워야 할 미혼남녀, 예비부부, 신혼기부부,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시책과 사례를 살펴보고 대안 마련을 위해 창원시의회 복지시책개선연구회에서는 경남대학교 지방의회의원 입법자문센터와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창원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버지교육, 신혼기 부부교육 등을 하곤 있지만, 필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사전교육을 통해 부부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 청소년문제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 또한 절감하게 될 것이다.

자발적인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이수자에게, 연간 50시간이상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시설공단 운영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주차료 할인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미혼남녀가 많은 대학, 기업체에는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교육도 실시해볼 만하다.

행복한 부부생활과 올바른 자녀교육을 통해 '된사람'들로 구성된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 희망찬 창원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2013. 7. 25 창원시보 제74호 게재)

로컬푸드 활성화와 학교 및 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노 창 섭 의원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FTA 체결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소비자들이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로컬푸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농가의 소득을 실현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1차 사업인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2차 사업으로 '지역거점 센터를 통해 1차 농산물을 가공, 필요한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포장하는 사업'과 3차 사업인 '농산물 직매장을 통한 판매와 농가 레스토랑 등 시장흐름에 맞게 판매·유통하는 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 종합적인 6차 산업인 로컬푸드 사업이 첨단 농업시대로의 전환 정책이다.

최근 동료 의원 4명과 로컬푸드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 큐슈지역을 2박3일간 다녀왔다. 일본의 경우 '지산지소'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직매장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고, 전체 1만6,816개소에서 연간 9조9,5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일본 최초 직매장인 큐슈지방의 오야마 농협(JA)의 경우 '지산지소' 운동 실천의 핵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지난 7월18일 일본 현지 오야마 농협(JA) 조합장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은 23년 전 이러한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졌으며, 운영원칙은 '다품종 소량생산'과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80km나 떨어진 곳에 사는 소비자들도 찾을 정도로 성공했다고 한다. 일본 오야마 지역의 농민들은 해외여행을 연중 두 번 이상 다녀 올 정도로 고소득을 보장받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로컬푸드의 상승세는 무섭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파머서 마켓'이 1994년 약 1,700여개에서 지난해 7,800여개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북 완주군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완주군수와 용진농협 조합장의 의지로 65만 명의 전주시와 인근 완주군이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일본 큐슈지방 미찌노에키 연수 등 각종 교육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12년 4월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개장해 일일 평균 2,300만원의 매출과 1,200여명 이상의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일본 오야마 농협(JA) 조합장의 말처럼 창원시는 인근 400만 명의 부산광역시와 110만 명의 도시 소비자가 있는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지역의 10만 명이 넘는 농, 어촌 주민들을 위한 로컬푸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남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단'을 출범하여 로컬푸드의 합리적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학교 급식의 식재료 공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도내에는 거창군과 통영시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다. 김해시와 사천시도 지원센터를 설립 준비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광주시 곤지암에 경기도 학교급식 유통센터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 산하 8개 지방자치 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는 2013년 우수 식품비를 포함한 약 165억 원의 학교 급식예산을 창원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다. 2014년까지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으로 237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학교 급식비와 우수식품 구입비는 현금으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각 학교별 급식 조달시스템으로 운영, 집행되고 있어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 창원시도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추진되는 로컬푸드 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

(2013. 8. 25 창원시보 제76호 게재)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를 아십니까?



김 석 규 의원

몇 달 전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의원님 혹시 키즈카페라고 아십니까?”라고 물어와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자 학부모는 “우리 애가 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대책이 너무 허술해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내용인즉 성산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사고가 났는데, 업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에 화가 많이 나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전화를 받고 자세히 알아보니 ‘키즈카페’는 식품을 팔면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신종업종으로 보통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어린이 6,000원 정도이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3년 4월말 전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8살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사고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창원시가 파악하고 있는 키즈카페는 모두 15곳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업소는 이 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왜 그럴까? 신종업종으로 불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에 맞는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전관리뿐만 아니다. 환경위생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키즈카페 환경안전진단 결과 서울·경기 키즈카페 9곳 가운데 5곳의 도료 및 바닥재에서 납·카드뮴·수은 등의 중금속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한다.

도심 내 부모와 아이들의 쉼터와 놀이터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성이 당연히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키즈카페 내의 환경, 위생, 안전 등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키즈카페라는 새로운 유형의 놀이시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창원시 등 관계기관은 키즈카페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3. 9. 10 창원시보 제77호 게재)

마산분리에 대한 단



김성준의

2010년 7월 1일 전국 자율통합1호 도시의 여망을 안고 통합창원시가 출범했다. 과정의 핵심은, 2009년 마·창·진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산 87.7%, 창원 57.3%, 진해 58.7%로 옛 마산시민들의 절대다수 찬성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옛 마·창·진해 시민들의 가슴 속에서는 화합과 균형발전을 기원했다.

그러나 한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통합청사의 문제가 당초 통합준비위원회의 합의정신인 1순위 마산과 진해라는 결정을 망각한 채, 시의회에서 결정한다는 합의문에만 집착되어 지역별 이기주의로 마산을 소외하는 1차 결과물을 만들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마산출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마산출신 시의원 숫적인 부문과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해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한계가 있었지만, 합리적인 논의를 만들어 내지 못한 점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정권을 가진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지난 4월23일 의원직 사퇴를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마산지역 한 국회의원의 분리법안 발의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언론 등에 발표된 여론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보면 마산합포구 주민들의 여론은 일정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통합전 마산시청이 있었던 곳으로 주민들의 상실감을 이해하고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마산회원구는 분리를 반대하는 여론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높다. 여기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했을 것이라 본다. 그래서 우선 법안 발의를 위해 최소한 마산지역 두 국회의원이 축이 되어 시민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했는가에 대해 반문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법률,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조례다. 이를 통해 시민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이 1차적 목표다.

그렇다면 분리법안이 발의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냉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주영 국회의원은 분리법안에 대한 통과여부, 분리 후 마산발전에 대한 청사진 등 구체적인 제시를 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의 대정부 건의문의 요지처럼,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안홍준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의 개입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원시는 행정의 입장에서 제안한 창원미래발전기획단의 연구물을 조속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조정위원회든, 분리든, 미래 발전기획단이든 궁극적으로는 마산시민들의 아쉬움과 자존심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충정임에는 모두 이해가 된다.

(2013. 9. 25 창원시보 제78호 게재)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